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게

진 다 영

-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재학
- 2023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전국)직렬 합격

Prologue

안녕하세요, 2023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전국) 합격자입니다. 5급 공채 공부를 하면서 종종 힘들 때마다 합격하고 합격수기를 쓰는 상상을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합격을 하고 연이 닿아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 역시 진입 초기와 공부 중간중간 당시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를 읽고 많은 도움을 얻곤 했었습니다. 제 합격수기가 부족하지만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고시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느꼈던 아쉬움과 모자람 역시 반면교사가 되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간단히 제 수험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2021년에 일반행정 전국직으로 초시를 응시하였으나 1차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에 일반행정 지역직으로 전환하여 운이 좋게도 3차 면접까지 가게 되었으나,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제가 면탈한 지역의 티오가 0명

이라 해당 지역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행정 전국직으로 1차부터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약 3년간의 수험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턱걸이로 학교 고시반에 입실한 제가 입실시험 1등을 해보는 등 급격한 실력 상승도 경험했고, 처음 응시해본 2차에서 면접까지 가본 경험, 그 해 면탈 경험, 면탈한 다음 해 해당 지역의 티오가 없어지면서 전국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깊은 괴로움을 느낀 경험 등등 다른 수험생분들이 쉬이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펙타클한 수험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Ⅰ. 활용방법

막상 합격수기를 쓰려니 부끄럽기도 하고, 기억을 더듬어가며 쓰다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입부터 합격까지의 시간순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하고자 하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취사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시와 비교하여 재시·삼시에 PSAT(피셋) 점수를 많이 올렸는데, 피셋 공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2차 시험에서 한번도 불합격해보지 않았기에(제 작은 자부심이기도 합니다…ㅎㅎ), 제가 2차 공부를 준비한 과정과 시행착오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Ⅱ. 시기별 수험공부의 방법

1. 진입 전

저는 원래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행정고시에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차를 시험삼아 풀어보지도 않고, 정확히 어떤 과목을 응시하는지, 심지어 5급 사무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과에서 행정고시를 많이들 준비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막연하게 “한번 해볼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입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진입하고 나서 공부가 잘 맞았고 공직자라는 직업이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도 잘 부합하였으나, 만일 진입하고 나서야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대다수는 행정고시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입하셨겠지만, 혹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험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과목을 응시하는지, 합격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진입 직후

예정대로라면 3학년을 마친 2021년부터 진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모든 대학 수업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학교를 못가는 상황이고, 거리

두기 때문에 약속도 없을테니, 일찍 진입해버리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는 학기와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대학교는 고시반에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고시반에 입실하여 예비순환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하고자 했으나, 마찬가지로 코로나때문에 해당 강의들이 모두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강의가 열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함께 진입을 고민하던 동기를 설득하여 한림법학원 예비순환을 구매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체크하며 공부하니, 혼자 할 때보다 동기부여가 잘 되었습니다. 2차 과목을 공부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피셋을 혼자 풀어보면서 고시반 입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응시요건인 한국사와 토익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 강의 및 도서

저는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21년 대비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예비순환을 들었습니다. 경제학은 황종휴 강사님, 행정학은 박경효 강사님, 정치학은 김희철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행정법은 학교 고시반에서 틀어주는 베리타스 정선균 강사님의 예비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교재의 경우 경제학은 다이제스트(황종휴 저), 행정법은 행정법강해(정선균 저),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저), 행정학은 재미있는 행정학(박경효 저), 정치학은 펀더멘탈 정치학(김희철 저) 및 강의 필기자료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법강해와 재미있는 행정학, 펀더멜탈 정치학은 예비순환 시기뿐만 아니라 수험 기간 내내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강의교재 외에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교과서 역시 구매하여 기본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2) 학기병행에 대하여

저는 2020년 1,2학기 모두를 학교 수업과 고시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학과가 고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 있었다는 점, 마침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많았다는 점 덕분에 다행히도 고시공부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수업을 완전히 등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업도 신경써야 하고, 틈틈이 과제 제출, 중간기말 시험까지 보기 때문에 고시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입 초기 고시와 학기를 병행하면서 예비순환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 2차 공부 기초가 빈약하게 세워지면서 추후 공부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오프라인 수업도 다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진입 초기에 병행을 고민하신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연차가 쌓였다면, 2학기는 병행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3. 2021년 1월 ~ 2021년 3월

2021년 1월에 고시반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1차에 응시하기 위해 PSAT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강의가 보통 여름에 열리고, 핵심강의 또는 실전 모의고사가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수강

하지 않고 바로 실전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언어논리는 이나우 강사님, 자료해석은 신헌 강사님, 상황판단은 박준범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에 한 과목씩 1세트를 풀었고, 토요일에는 법률저널이나 메가피셋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응시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 김유향 강사님의 핵심강의를 들으며 기출문제해설집을 2번 풀었습니다.

제가 시기에 아쉬웠던 점은, 1차 과목, 특히 PSAT의 경우 기본강의도 안들어보고 기출분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모의고사부터 수강하게 되었다는 점, PSAT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음에도 하루에 언,자,상 중 한 과목만 푸는 등 절대적인 양 역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의 경우 핵심강의와 기본서(5급 헌법, 김유향 저)를 병행하고, 1차시험 직전에는 기출문제해설집만 반복해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2021년에는 일반행정 전국직을 응시하였으나, 평균 72.5점(합격컷 75점)으로 아쉽게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4. 2021년 3월 ~ 2022년 2월

비록 2차 시험장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본격적으로 2차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였습니다. 황종휴 강사님의 경제학 1순환을 수강하며 트리니티 경제학(황종휴 저)를 공부하였고, 2순환 시기에는 연습책(황종휴 저)을 반복적으로 풀며 경제학적 사고를 익히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정선균 강사님의 1순환과 2순환을 들은 후 류준세 강사님의 1순환을, 행정학은 박경효 강사님의 1순환, 2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정치학은 펀더멘탈 교재와 단행본 〈정치학의 이해〉(진영재 저)를 반복적으로 읽고, 도란둥이 1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때 강사 모의고사는 거의 빠지지 않고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령 풀다가 막혀서 답안지를 참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환강의 및 개인공부와 별도로 답안스터디를 꾸려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하루에 경제학 연습책을 10문제씩 풀고 인증하고, 행정법 기출 및 사례연습집(정선균 저)을 함께 풀고 첨삭해주었습니다. 또한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암기스터디를 조직하여 하루에 10개씩 외우고 서로 체크해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꾸준히 행정법 답안을 쓰고 키워드를 암기하면서 실력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시생 또는 저연차 고시생분들 중에는 답안을 실제로 써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답안을 쓰면서 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실력 상승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순환 중 행정법까지 마치고 난 후, 내년 1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차를 준비하면서 양과 질 모두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셋스터디를 조직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였고, 공부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기본강의는 스킵하고,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를 수

집하여 매일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추어 언자상 1세트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채점 후 채팅방에 점수를 인증하여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 김유향 강사의 핵심강의를 수강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실전모의고사와 기출문제해설집을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메가피셋, 프라임, 법률저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를 매주 응시하였습니다. 실제 1차 시험 2주 전부터는 기출문제를 다시 풀며 분석하였습니다.

5. 2022년 3월 ~ 2023년 6월

(1) 처음에

2022년도에는 일반행정 지역직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제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피셋스터디 당시 스터디원들과 비교했을 때 점수가 좋지 않아 실전에서 고득점을 맞을 자신이 없었는데 2차 시험장은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차 합격컷이 낮은 지역직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평균 73.3 (지역컷 63.3)으로 당시 전국직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넉넉하게 1차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 자체에는 후회가 없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2차에도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점수 역시 전국 최종 합격컷과도 근접했었다는 점에서 지금 되돌아보았을 때 선택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전국에서 지역직으로 직렬을 바꾸고자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조언이 뼈저리게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 2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황종휴 강사님의 경제학 3순환,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3순환, 박경효 강사님의 행정학 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제학 3순환 및 교재인 정선 문제집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강의 수강을 중단하고 연습책을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답안스터디와 2순환 당시 모의고사를 매일 풀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어 따라가기 수월했습니다. 행정학의 경우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재미있는 행정학 기반으로 3순환 강의자료를 덧붙여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치학은 강의를 듣기 보다 합격생 서브노트를 구하여 도란둥이 강의자료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교수모의고사 역시 틈틈이 응시하여 실전에 대비하였습니다.

(2) 이 시기 느낀 점

경제학의 경우 매우 약한 과목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실제로 답안 쓰는 것에 매우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3순환도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과락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연습책을 2~3번 반복할 정도로 양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순환강의 난이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쉬움은 논문과목입니다. 2차를 처음 응시하는 거라, 공부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브노트를

급하게 만드느라 시험 직전이 되어서야 저만의 서브노트를 완성지을 수 있었고, 정치학의 경우 시행착오를 거치다 결국 다른 합격생의 서브노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전 겨울에라도 틈틈이 만들어 완성한 후, 2차 기간에는 그걸 수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2022년 9월 ~ 2023년 3월

2022년 2차를 응시하고 난 후, 개인적으로는 합격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2차 합격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아 9월 전까지는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2차에 합격하게 되어, 고시반에서 진행하는 면접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원한 지역이 1명만을 최종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하였지만, 처음 응시한 2차에서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들어가 본 경험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올해 느낀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열심히 한다면 내년에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 내년 동일 직렬에서 1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1차 준비기간 동안 2차를 더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발표 직후부터는 권준영 강사의 1순환과 황종휴 강사의 2순환을 수강하며 그동안 잊었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경제학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풀지 못했기 때문에, 김진욱 강사의 국제경제학 1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향기 교수님의 사례집을 풀면서 행정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티오가 발표된 이후 제가 면탈한 지역 티오가 0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1차부터 응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허탈하고 좌절하여 잠깐이나마 이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고시말고 다른 진로는 생각해 본 적 없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1차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1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88.3점(1차 합격선 84점)으로 여유있게 1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7. 2023년 3월 ~

고시반에서 함께 면접탈하신 분들과 새롭게 스터디를 구성하여 내년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에서 행정학, 행정법, 정치학 기출을 풀고, 법전협 모의고사를 구하여 행정법 답안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경제학은 황종휴 강사님의 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작년에 연습책을 열심히 푼 결과 올해는 정선 문제집을 무리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선 문제로는 충분한 양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선 문제집과 연습책을 함께 풀었습니다. 그 외 김진욱 강사님의 STEP 2 거시경제학 실전문제집만 구매하여 가볍게 풀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정선균 강사님의 3순환을 수

강하고, 류준세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구해 함께 풀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행정법 엑기스〉를 통해 암기를 했다면, 이번 2차 준비 기간에는 류준세 강사님의 쟁점암기책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 외 강사님의 기상특강을 직전까지 수강하였습니다.

행정학의 경우 작년에 만들어놓은 서브노트가 있어, 새롭게 3순환에서 다루는 이슈만 읽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정치학의 경우 작년에 쓰던 합격자 서브노트보다 잘 만들 자신이 없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윤정진 강사님의 3순환 자료를 매일 읽으며 논점을 보충하였습니다. 그 외에 〈왈츠 이후〉라는 단행본을 요약하여 국제정치 파트를 공부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교수 모의고사 역시 응시하였으나, 답안까지 제출하고자 노력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논점 파악, 목차 잡기 정도만 하고 강평 참석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시험 후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작년과 같이 시험 생각은 접어둔 채 휴식을 취했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시험을 본 이후 느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합격 기대를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니 오히려 더 긴장이 되어서,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 여행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2차에서 합격을 하였고, 3차 역시 고시반에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면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Ⅲ. 과목별 수험공부방법

1. PSAT 및 헌법

저는 언어논리가 약하고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오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 최대한 방어하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두뇌보완계획〉 단행본을 읽고 〈기준서〉(김승환 저)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황판단의 경우 퀴즈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답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의 경우 무조건 다 맞아야 최소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퀴즈는 다양한 강사들의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에서 낯선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해석의 경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노력하면 점수를 올리기 가장 쉬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력을 올린 과목이기도 합니다. 석치수 강사님의 기본강의 역시 들어보았으나, 제 머리로는 그 정도 사고력까지 미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대신 퍼센트 계산법, 용병법 등 괜찮은 계산법을 몇 가지 외워두어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하였고, 절대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 한 번 기본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몇 번 읽으며 중요한 개념을 먼저 숙지한 후, 5급뿐만 아니라 7급, 8급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했으나, 한 문제당 4점이고 자칫 과락이 나오면 큰일나기 때문에 100점을 맞는다는 각오로 공부했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은 제가 수험 시작부터 끝까지 힘들어했던 과목이고, 실제 시험에서도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은 과목이라 공부 방법을 추천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 답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풀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연습책(황종휴 저)을 약 3~4번 이상 반복적으로 풀고, 개념노트를 만들어 함의를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행정법

행정법은 답안을 쓰는 것이 실력을 상승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으면 하루에 한 번, 다른 과목과 병행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무조건 행정법 답안을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기출뿐만 아니라 교수 사례집(김향기 교수님), 교수 모의고사, 법전협 모의고사, 강사 모의고사(정선균, 류준세, 박도원)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답안은 암기가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법 엑기스와 쟁점암기책을 이용하여 암기스터디를 통해 키워드를 그대로 외워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과목 특성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지 범위를 잡기가 모호하고, 어느 정도로 깊게 공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불의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강사 한 명을 정해서 그 책에 나온 개념들만 흡수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여러 자료를 읽어보았을 때 한 자료에서만 다루는 마이너한 개념은 과감히 버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사람인지라 2차시험 직전에는 불의타에 대한 걱정으로 모두 암기하려는 욕심이 생겼으나, 결국 이도저도 아닌 채 불안감만 증폭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학 공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범위 내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행정학

행정학은 답안을 쓸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구조 또는 사고의 틀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이는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제시문을 읽었을 때 어떤 틀 또는 구조를 설정하여 이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논리를 통일성 있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학 배경지식이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나 강사 자료에 나오는 행정학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사례 등을 풍부하게 알아둘수록 이를 시의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학 역시 정치학과 같이 공부 범위를 잘 설정하여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Ⅳ. 수험공부의 루틴

저는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기 기억력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늘리는 노력으로 이걸 커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월~토요일은 8시에 학교에 와서 새벽 1시정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1차 기간에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좀 더 늦게 와서 일찍 집에 가고, 2차 준비기간에는 더 늦게 귀가하기도 하고 일요일에도 공부하는 등 시기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곤증이 심해서, 점심 저녁시간 전후로 공부시간을 많이 뺏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가볍게 먹거나, 아예 밥을 먹고 난 뒤에는 무조건 20분 정도는 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2차 준비 기간에는 밥먹고 잠 자는 시간도 아까워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고 출출하면 간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체력도 그렇고 살이 찌기 쉬운 습관이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에 첫 2차시험을 준비할 때, 체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때 든 생각이, 내년에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꼭 운동이랑 병행해야지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아침에 수영을 하고 등교했습니다. 오전 7시에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면서, 잠도 깨고 그 때 만큼은 공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체력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수영 정말 추천합니다.

Ⅴ. 마치면서

1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100가지의 공부방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람마다 자신만의 공부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의 제 공부방법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행정고시라는 시험은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실력이 비례해서 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텐션이 떨어지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빨리 합격해서 여길 뜬다.”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